

내면적 부패에 에 관한 연구 : 기독교학적 접근을 중심으로¹⁾

(A Study of Internal Corruption: focused on Christian Studies)

김영종 교수(송실대)²⁾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internal corruption, especially in terms of Christian studies. The descriptive methodology on the basis of library research has been selected to obtain the goal of this study. In this paper, the author defines the concept of internal corruption focusing on the spiritual, total, and universal corruption in terms of ontological perspective. Furthermore, the author contends that it is required to minimize the internal corruption by using external healing mechanism, which refers to the Redeemer, especially the Son of God, Son of Man, Savior, Mediator, and Reconciliator.

In particular, the author emphasizes several prescriptive mechanism such as recovering spirituality, enhancing sanctification, strengthening church mission for preventing corruption of Christians.

The author concludes that it can not be expected to prevent the prevalent and serious corruption phenomena in Korea without controlling mechanism of internal corruption.

Keywords: Internal Corruption, Spiritual Corruption, Total Corruption

1)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송실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2) 송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1. 문제의 발견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위기차원을 넘어 국가의 총체적인 시스템의 붕괴직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의 한 연구 조사기관이¹⁾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들 65%의 응답자가 공직부패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며 이는 금년 3월보다 5%가 증대된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년 10. 17일 발표한 '부패관련국민인식도'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6%가 공직부패가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3월 조사(3월 59.3%, 6월 58.2%)보다 5~6%가 높아졌다. 2001년 11월(71.1%) 첫 조사 이후 2002년 12월(53.1%)까지는 계속 낮아지다 올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를 2개씩 고르라는 질문에는 정치(90.1%)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29.8%), 공기업(20.0%), 사법(20.2%)순이었다. 또 행정분야 중에서는 건설·건축(72.6%), 세무(58.1%), 법무(57.0%) 순으로 부패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반면 소방(9.4%), 조달(27.4%) 분야에서는 이런 응답이 적었다. 만약 부정부패나 비리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신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37.8%, 공무원의 40.1%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일반국민의 경우 '별 효과가 없어서(54.1%)', 공무원은 '인간적관계 때문(39.8%)'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는 연 4회씩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전국의 성인남녀 1천4백명과 공무원 7백명 등 2천1백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의 부패척결에 대한 조사결과는 매우 흥미 있다.²⁾ 첫째, 2000년도에 우리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① 부정부패 척결(31.0%) ② 고용안정(18.8%) ③ 경제활성화(15.1%)④ 정치안정(12.6%)이다. 부패척결이 단연 가장 높다. 둘째, 10년 안에 우리사회가 꼭 이루기를 희망하는 과제? ① 경제발전(22.1%) ② 부정부패 척결(21.7%) ③ 남북통일(19.2%) ④ 사회복지 확대(19.2%) 부패척결이 경제발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셋째,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불법·탈법행위? ① 부정부패(66.4%) ② 환경오염범죄(9.0%) ③ 탈세/투기 등 경제범죄(8.5%) ④ 학원폭력 등 청소년범죄(6.9%)의 순서이다. 부패행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답하고 있다.

박중훈(1999)의 부패조사에 의하면, 정치인의 96%가 부패했으며, 고위공직자는 87%가 부패했다고 설문대상자들은 응답하였다³⁾. 장준오(2000)의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뇌물을 주었을 때에 이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국회의원으로 밝혀졌다.. 정영국(1999)의 조사에서는 정치권(85%)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⁴⁾

한국이 얼마나 부패한 것은 다음의 기사가 잘 설명하고 있다⁵⁾

이승만 대통령이 부패까지 했던들 건국 대통령으로 다시 살아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장기 집권과 독재를 했지만 그의 사생활은 극히 검소·청렴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4·19 후 축재설·해

1) 중앙일보, 2003.10.18.

2) 이자료는 1999. 12 미디어리서치가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반부패특별위원회(2001), 『부패방지백서』 서울: 반부패위원회, 53-54.

3) 장준오(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정영국외(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 송진혁(2003.8.19), “강산에 진동하는 돈 냄새”, 서울: 중앙일보

외 자금은닉설 등이 나돌아 정부가 공식 조사까지 했지만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말년의 하와이 망명생활에선 돈이 없어 현지 동포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꾸리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장기 집권과 독재를 했지만 사생활은 검소하고 깨끗했다. 만일 그가 개인적으로 축재하고 부패했 던들 아무리 산업화의 공로가 크더라도 국민의 지속적인 높은 존경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YS도 만일 본인에게 부패라는 약점이 있었다면 퇴임 후 그렇게 거침없이 독설을 퍼붓는 처신은 못했을 것 이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다른 것 같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나 시국에 대해 때로는 걱 정을 표할 만도 한데 도통 말이 없다. 수천억원씩 개인 축재가 드러난 터에 무슨 낮으로 그런 발언을 하겠는가.

과거 조병옥·장면 같은 분도 개인치부는 없었고, 사쿠라 소리까지 들던 유진산(柳珍山)은 단 하나 남긴 집 한채마저 은행에 잡혀 있었다. DJ의 경우 아직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개인축재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그의 아들 3형제가 1백% 재판에 걸려있고, 수많은 조카·처조 카·측근·가신·비서실장들이 검찰에 들락거리는 것을 보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가 어 렵다. 또 그런 수하(手下)의 부패 문제에 대해 그 자신 책임이 없다고 하긴 어렵다. 쿠바 카스트로의 40여년 독재를 가능케한 한 요소가 바로 그가 부패하지 않은 점이라고 한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아직 살아 있지만 그의 대통령궁과 아들한테서 돈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됐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사람, 저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경우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탐욕과 부패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근원적으로 내면적 부패에 관련되어 있고 탐욕이 주범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부패감시 국제민간단체 인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발표한 200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조사대상 1백33개 국 가운데 52위로 지난해(40위)보다 12단계 하락한 바 있다 이제 부패는 삶의 행태(modus operandi)가 되어버린 한국의 현실을 기독교학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진단할까?

2. 내면적 부패의 개념

2.1 부패의 일반적 개념 및 실태

부패란 무엇인가? 그 일반적인 개념부터 살펴보자. 아래 표 2-1 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부패의 주요개념과 대표학자와 그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표2-1 부패의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

접근방법 (approach)	주 요 내 용	분석의 단위 (unit of analysis)	대표학자
윤리 및 도덕설 (moral approach)	공직의 비윤리적 및 비도덕적 이용	관료와 사회(관료의 행위)	E.C.Banifield R. Wraith J.T.C.Liu
제도적 접근설 (institutional approach)	제도적 취약성과 사회적 기강의 해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도, 연성국가(Soft state)	S.P.Huntington E.V.Roy G.Myrdal
시장/교환설 (market/exchange approach)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교환관계	관료와 고객집단 (관료의 직책)	J.V.Klavern R.O.Tilman A.J.Heidenheime H. Simon
공익설 (public interests approach)	공익위반의 결과	관료의 행태, 의사결정과정 (이해관계 집단의 공존된 이익)	R.W.Friedrichs H.D.Lasswell
기능주의설 (functionalism approach)	발전과정의 부산물	관료제도, 기업가, 사회(후진국)	N.H.Leff J.S.Nye B.F.Hoselitz
후기기능주의 (post-functionalism approach)	보편적 현상과 자기영속성의 현상	선진국의 관료제도 후진국의 관료제도	S.B.Werner
권력관계설 (power-cultural approach)	관료의 권력남용과 역기능의 부산물	관료제와 권력	F.W.Riggs H.H.Werlin J.C.Scott
사회문화적 규범설 (socio-cultural approach)	사회문화적 환경과 전통의 부산물	사회문화적 환경, 관료제의 역사성	R.Wraith E.Simpkins
통합설 (integrated approach)	복합적 행정현상:선진국과 후진국의 공통성과 특수성, 부패의 제변수(예:제도,행태,환경)의 복합적, 다면적 현상, 제도, 행태, 환경의 상호부작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행위, 공직의 사회문화적 규범위반과 기대가능성의 일탈행위	선진국 후진국의 관료제도의 특징 비교 관료제도, 행태,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주요변수분석, 발전의 특수성과 보편성, 목표과 과정, 질, 양 그리고 가치변화와 사실변화, 또는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의 통합적 분석	필자의 견해

자료: 김영중(2001), *부패학(4판)* 서울: 승실대출판부,38.

요컨대 부패란 통합적(통전적) 접근에서 공직자가 국민의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위반한 불법적(illegal)이고 비도덕적(immoral)인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라고 본다.

부패의 실태는 어떠한가? 살펴보자. 표 2-2가 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지수(CPI)의 변화를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표2-3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Singapore(5위),Hong Kong(15위),Japan(22위), Taiwan(31위),Malaysia(37위)에 이어 52위에 머무르고 있다.

표2-2 한국의 부패인지수(CPI) 변화

연도	결과	순위	조사대상국수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0	43위	85개국
1999	3.80	50위	99개국
2000	4.00	48위	101개국
2001	4.20	42위	91개국
2002	4.50	40위	102개국
2003	4.30	52위	133개국

표 2-3 각국의 부패인지 지수(CPI)

Country rank	Country	CPI 2003 score	Surveys used	Standard deviation	High-low range	Country rank	Country	CPI 2003 score	Surveys used	Standard deviation	High-low range
1	Finland	9.7	8	0.3	9.2 - 10.0	67	Panama	3.4	7	0.8	2.7-5.0
2	Iceland	9.6	7	0.3	9.2-10.0	68	Sri Lanka	3.4	7	0.7	2.4-4.4
3	Denmark	9.5	9	0.4	8.8-9.9	69	Sylia	3.4	4	1.3	2.0-5.0
4	New Zealand	9.5	8	0.2	9.2-9.6	70	Bosnia & Herzegovina	3.3	6	0.7	2.2-3.9
5	Singapore	9.4	12	0.1	9.2-9.5	71	Dominican Republic	3.3	6	0.4	2.7-3.8
6	Sweden	9.3	11	0.2	8.6-9.6	72	Egypt	3.3	9	1.3	1.8-5.3
7	Netherlands	8.9	9	0.3	8.5-9.3	73	Ghana	3.3	6	0.9	2.7-5.0
8	Australla	8.8	12	0.9	8.7-9.5	74	Morocco	3.3	5	1.3	2.4-5.5
9	Norway	8.8	8	0.5	8.0-9.3	75	Thailand	3.3	13	0.9	1.4-4.4
10	Switzerland	8.8	9	0.8	6.9-9.4	76	Senegal	3.2	6	1.2	2.2-5.5
11	Canada	8.7	12	0.9	6.5-9.4	77	Turkey	3.1	14	0.9	1.8-5.4
12	Luxembourg	8.7	6	0.4	8.0-9.2	78	Armenia	3.0	5	0.8	2.2-4.1
13	United Kingdom	8.7	13	0.5	7.8-9.2	79	Iran	3.0	4	1.0	1.5-3.6
14	Austria	8.0	9	0.7	7.3-9.3	80	Lebanon	3.0	4	0.8	2.1-3.6
15	Hong Kong	8.0	11	1.1	5.6-9.3	81	Mali	3.0	3	1.8	1.4-5.0
16	Germany	7.7	11	1.2	4.9-9.2	82	Palestine	3.0	3	1.2	2.0-4.3
17	Belgium	7.6	9	0.9	6.6-9.2	83	India	2.8	14	0.4	2.0-4.3
18	Ireland	7.5	9	0.7	6.5-8.6	84	Malawi	2.8	4	1.2	2.0-4.4
19	USA	7.5	13	1.2	4.9-9.2	85	Romania	2.8	12	1.0	1.6-5.0
20	Chile	7.4	12	0.9	6.6-8.8	86	Mozambique	2.7	5	0.7	2.0-3.6
21	Israel	7.0	10	1.2	4.9-9.2	87	Russia	2.7	16	0.8	1.4-4.9
22	Japan	7.0	13	1.1	5.5-8.8	88	Algetia	2.6	4	0.5	2.0-3.0
23	France	6.9	12	1.1	4.6-9.0	89	Madagascar	2.6	3	1.8	1.2-4.7
24	Spain	6.9	11	0.8	5.2-7.8	90	Nicaragua	2.6	7	0.5	2.0-3.3
25	Portugal	6.6	9	1.2	4.9-8.1	91	Yemen	2.6	4	0.7	2.0-3.4
26	Oman	6.3	4	0.9	5.5-7.3	92	Albania	2.5	5	0.6	1.9-3.2
27	Bahrain	6.1	3	1.1	5.5-7.4	93	Argentina	2.5	12	0.5	1.6-3.2
28	Cyprus	6.1	3	1.6	4.7-7.8	94	Ethiopia	2.5	5	0.8	1.5-3.6
29	Slovenia	5.9	12	1.2	4.7-8.8	95	Gambia	2.5	4	0.9	1.5-3.6
30	Estonia	5.5	12	0.9	4.7-7.8	96	Parkistan	2.5	7	0.9	1.5-3.9
31	Taiwan	5.7	13	1.0	3.6-7.6	97	Philippines	2.5	12	0.5	1.6-3.6
32	Qatar	5.6	3	0.1	5.5-5.7	98	Tanzania	2.5	6	0.6	2.0-3.3
33	Estonia	5.5	12	0.6	4.7-6.6	99	Zambia	2.5	5	0.6	2.0-3.3
34	Uruguay	5.5	7	1.1	4.1-7.4	100	Guatemala	2.4	8	0.6	1.5-3.4
35	Italy	5.3	11	1.1	3.3-7.3	101	Kazakhstan	2.4	7	0.9	1.6-3.6
36	Kuwait	5.3	4	1.7	3.3-7.4	102	Moldoya	2.4	5	0.8	1.6-3.6
37	Malaysia	5.2	13	7.7	3.6-8.0	103	Uzbekistan	2.4	6	0.5	2.0-3.3
38	United Arb Emirates	5.2	3	0.5	4.6-5.6	104	Venezuela	2.4	12	0.5	1.4-3.1
39	Tunisia	4.9	6	0.7	3.6-5.6	105	Vietnam	2.4	8	0.8	1.4-3.6

40	Hungary	4.8	13	0.6	4.0-5.6	106	Bolivia	2.3	6	0.4	1.9-2.9
41	Lithuania	4.7	10	1.6	3.0-7.7	107	Honduras	2.3	7	0.6	1.4-3.3
42	Namibia	4.7	6	1.3	3.6-5.5	108	Macedonia	2.3	5	0.3	2.0-2.7
43	Cuba	4.6	3	1.0	3.6-5.5	109	Serbia&Montenegro	2.3	5	0.5	2.0-3.2
44	Jordan	4.6	7	1.1	3.6-6.5	110	Sudan	2.3	4	0.3	2.0-2.7
45	Trinidad and Tobago	4.6	6	1.3	3.4-6.9	111	Ukraine	2.3	10	0.6	1.6-3.8
46	Belize	4.5	3	0.9	3.6-5.5	112	Zimbabwe	2.3	7	0.3	2.0-2.7
47	Saudi Arabia	4.5	4	2.0	2.8-7.4	113	Congo, Republic of the	2.2	3	0.5	2.0-2.8
48	Mauritius	4.4	5	0.7	3.6-5.5	114	Ecuador	2.2	8	0.3	1.6-2.6
49	South Africa	4.4	12	0.6	3.6-5.5	115	Iraq	2.2	3	1.1	1.2-3.4
50	Cosra Rica	4.3	8	0.7	3.5-5.5	116	Sierra Leone	2.2	3	0.5	2.0-2.8
51	Greece	4.3	9	0.8	3.7-5.6	117	Ukraine	2.2	6	0.7	1.8-3.5
52	South Korea	4.3	12	1.0	2.0-5.6	118	Cote d'Ivoire	2.1	5	0.5	1.5-2.7
53	Belarus	4.2	5	1.8	2.0-5.8	119	Kyrgyzstan	2.1	5	0.4	1.6-2.7
54	Brazil	3.9	12	0.5	3.3-4.7	120	Libya	2.1	3	0.5	1.7-2.7
55	Bulgaria	3.9	10	0.9	2.8-5.7	121	Papua New Guinea	2.1	3	0.6	1.5-2.7
56	Czech Republic	3.9	12	0.9	2.6-5.6	122	Indonesia	1.9	13	0.5	0.7-2.9
57	Jamaica	3.8	5	0.4	3.3-4.3	123	Kenya	1.9	7	0.3	1.5-2.4
58	Lalvia	3.8	7	0.4	3.4-4.7	124	Angola	1.8	3	0.3	1.4-2.0
59	Colombia	3.7	11	0.5	2.7-4.4	125	Azerbaijan	1.8	7	0.3	1.4-2.3
60	Croatia	3.7	8	0.6	2.6-4.7	126	Cameroon	1.8	5	0.2	1.4-2.0
61	El salvador	3.7	7	1.5	2.0-5.3	127	Georgia	1.8	6	0.7	0.9-2.8
62	Peru	3.7	9	0.6	2.7-4.9	128	Tajilistan	1.8	3	0.3	1.5-2.0
63	Slovakia	3.7	11	0.7	2.9-4.7	129	Myanmar	1.6	3	0.3	1.4-2.0
64	Mexico	3.6	12	0.6	2.4-4.9	130	Paraguay	1.6	6	0.3	1.2-2.0
65	Poland	3.6	14	1.1	2.4-5.6	131	Haiti	1.5	5	0.6	0.7-2.3
66	China	3.4	13	1.0	2.0-5.5	132	Nigeria	1.4	9	0.4	0.9-2.0
						133	Bangladesh	1.3	8	0.7	0.3-2.9

자료: http://www.transparency.org/pressreleases_archive/2002/2002.05.14.bpi.en.html

그리고 지방부패의 경우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표2-4가 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표2-4 지방부패의 기관 유형별 청렴도

기관유형	총 합 청렴도				잠 재 청렴도				
		체감 청렴도	부패 인식	부패 경험		업무 환경	행정 제도	개인 태도	부패 통제
전 체	6.43	6.52	6.65	6.39	6.33	7.33	5.74	6.54	5.62
중앙부처	6.52	6.71	6.82	6.59	6.33	7.39	5.65	6.61	5.56
청	6.33	6.63	6.21	7.09	6.03	6.91	5.56	6.16	5.44
지자체	5.74	5.26	6.34	4.11	6.20	7.08	5.73	6.38	5.52
교육청	7.22	7.61	7.32	7.91	6.84	8.06	6.06	7.10	6.01
공기업	6.08	6.15	6.20	6.10	6.02	6.80	5.64	6.12	5.46

자료: 부패방지위원회(2002), *부패방지백서* 서울: 부패방지위원회, 42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청렴도는 16개 교육청이 제일 높고(7.22) 다음이 중앙부처(6.52), 청(6.33), 공기업(6.08), 그리고 지방자치단체(5.74)의 순서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자체의 경우는 전체평균 6.43 보다도 더 청렴도가 낮은 5.74 인점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장으로서 지역주민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출범하였으나 동시에 지역이기주의와 지방부패와 갈등이라는 역기능과 부패를 간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감청렴도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경우는 5.26으로서 전체평균 6.52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즉 체감부패는 실제로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느끼는 부패의 정도로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패는 지자체가 가장 부패하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부패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 보도된 부패사례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구조적인 부패문화의 실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최근의 사례이다⁶⁾.

"받은 뇌물이 너무 많아 무슨일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검에 구속된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노모(46·6급) 계장은 자신의 구체적인 뇌물수수 내역조차 모를 만큼 자주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날 노씨를 구속한 울산지검 특수부 유혁검사는 "노씨는 지난 98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울산시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10만~100만원씩 뇌물을 받아 그날로 바로 친척 등 명의의 7개 차명계좌에 입금처리하는 등 월평균 2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해온 3억 4000만원이 뇌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예금 전액을 몰수하고 추정정보전조치를 취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된 울산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 최모(39·8급)씨 역시 울산시종합건설본

6) *조선일보*, 2003, 11, 21

부에 근무하던 98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공사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6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고, 공사현장 간이식당인 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상납받아 내연녀에게 운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노씨와 최씨 등 울산시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1·7급)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공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부산 국립부경대 6급 직원 허모(48)씨를 구속하고, 전 제주대 사무국장 이모(6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체 관계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2.2 내면적 부패의 개념

인간의 모든 부패는 지금까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여 왔다. 제도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상황 등 모두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였다⁷⁾. 내면적 부패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내면적 부패는 영적, 의식적, 심리적인 부패를 말한다. 인간의 행위는 의식의 결과적인 산물이다. 인간의 실체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3원론을 주장한다(히4:12). 영(spirit)과 혼(soul)과 몸(body)의 삼원론 이다⁸⁾. 인간은 영적인 동물(spiritual animal)이다. 일반적인 정신과 몸의 2원론과 상이하다. 영적인 문제가 잘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요1:2)⁹⁾ 따라서 내면적 부패는 기독교관점에서는 영적인 부패(spiritual corruption)라고 할 수 있다¹⁰⁾.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존재¹¹⁾이다.

둘째, 내면적 부패는 전적부패(total corruption)와 완전부패(perfect corruption)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패를 존재론적 접근(ontological approach)을 통하여 그 실체를 조명하면 부패는 자기 의지적이요,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생태적이다.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선천적이요 속성적 이다. 이것은 원죄(original sin) 이다. 따라서 우리영혼의 전부분에 침투된 죄의 본성은 유전성이 바로 내면적 부패의 본질적인 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불법적이고 도덕주의 적인 관점에서의 부패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셋째, 내면적 부패는 통전설(integrated theory)에 의한 부패의 보편성(universality)이다. 즉 누구나 타락하였고 부패하였으며 죄인이라는 개념이다. 완전 타락 설이다(로마서 3:23, 3:10, 전도서 7:20, 왕상8:46, 욥14:4, 시143:2)¹²⁾ 특히 위대한 종교개혁자 Martin Luther¹³⁾

7) 부패의 유형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김영중(2001), 부패학 서울: 숭실대출판부, 92-102.

8) 성경의 몸,정신,영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인격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영과 육은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모습이다.

9) 3요1:2 “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0) 원래부패의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에서 출발하였고 다양한 의미를 소유하고 있다. 히브리어 שַׁחַת(Shachath)이며 @ 기본어는 황폐하다, 멸망하다, 파멸하다, 파괴하다 (창 6:12 샓 2:19) 부패하다 (출 32:7, 신 4:15), 멸망시키다 (민 32:15), 멸하다 (창 9:11 렘 19:12), 죽이다 (사14:20 삼하 1:14), 꺾다 (렘 12:10 애 2:5), 더럽히다 (겔 28:17), 파괴하다 (사 54:16) 등이다. 구약원어 대조성경(1993),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381.

11) Georgia Harkness(김재준 역, 1963), *Christian Ethic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24-126.

12) 롬 3:23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오니” 롬 3:10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 하였다. 전7:20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고 하였고 왕상8:46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욥14:4에서는 “주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하였고, 시편 143:2에서는 “주의 종

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특히 의지(Will)의 부 자유를 원죄라고 한다.

넷째, 부패는 반드시 심판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즉 내면적 부패는 모든 부패의 불씨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는 의지의 질이 결핍되고 지성의 빛과 기억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특히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¹⁴⁾. 그 결과 부패의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은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나 노아의 방주 사건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¹⁵⁾. 성경은 이러한 죄의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인자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였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자랑할 때를(잠20: 6,9)경고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인간들에게 스스로의 명철과 지혜를 믿지 말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일러준다(잠3:5,7)

다섯째, 내면적 부패는 선행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justified by faith alone)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다.¹⁶⁾ 에릭 프롬(Erich Fromm)은¹⁷⁾ 인간의 타락은 신의 폭력(coercion)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자유의 첫출발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는 죄(sin)라는 것은 지식의 나무를 먹는 행위로 이것은 바로 이성의 시작이라는 것이다.¹⁸⁾ ¹⁹⁾ ²⁰⁾ 이러한 견해는 기독교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악과에 대하여 지적인 면에서는 불신앙과 자만심을 가져오고, 의지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욕망을 가져오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서 사악한 만족을 취하는 것이다.²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되고 타락하게 된다.

여섯째, 기독교에서는 죄를 원죄(original sin)와 자범죄(self-committed sin)로 나눈다. 내면적 부패는 이 두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원죄는 죄의 상태에서 죄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경우이며 자범죄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자범죄는 외부적인 행위의 죄와 원죄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욕망 등을 포함한다. 인간은 이러한 현실적인 죄에서도 벗어나기가 어렵다. 죄성은 부패이며 인간으로부터 바르게 사고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린다.²²⁾ 죄의 뿌리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다. 죄는 일반적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의식하지 못한 채 나타난다.²³⁾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로 역시 의인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롬3: 10-15에서 인간의 부패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특히 1요 1: 8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한다.

13) 이형기(1997),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사, 37.

14)Ibid. 43. Luther 는 롬5:12-14에서 부패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본다. 이것을 욕정(concupiscentia) 이라고 한다.

15) 예컨대 다음의 성경을 참조할 것 롬3:22 1요2:1-2 ; 백완기(1999), *성경과 민주주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31-239.

16)Ibid. 45.

17) Ibid. 234.

18) Erich Fromm(1941),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Avon Books,50.

19) 최낙재(1986), 『하나님의 나라』 서울:성서유니온, 49. 재인용.

20) Ibid., 47-48..

21) Louis Berkhof(1938),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The Banner of Truth, 68.

22) 이승구 역(1987), 『기독교 세계관연구원』 서울: 엠마오, 179.

23) Henry Drummond(유호준 역)(1995),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90-291.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해 준다(마7: 15-20), 사탄일수록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능력이 뛰어 나다(고후11:13). 인간이 죄에 약한 것은 그것의 위협적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데 있다.

일곱째, 내면적 부패의 지속성이다. 부패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한 벗어 날 수 없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와 죄의 원천이요(렘17:9),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약1:15). 죄의 지속적인 발생을 김홍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죄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패와 타락의 본성에 의해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후 인간은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와 같은 무죄의 세계로 돌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개개인이나 그들이 조직한 사회에서 일방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일방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가령 어떤 선을 조금 더 조장했다고 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에 따라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²⁴⁾

기독교에서의 부패의 개념은 죄의 행위보다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죄의식(sense of sin)을 강조한다. 니버가 정의한 “죄의식은 무한성(infiniteness)에 대한 유한성(finiteness)의 인식이다.”²⁵⁾ 한계성의 인식이라는 것으로 ‘완전성에서의 결핍’을 의미한다.²⁶⁾ 성경에서의 죄의식은 바로 한계의식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의 원리를 덧입 을때에 죄의 용서를 받게된다. 이것을 칭의(justification) 라고 한다.

3. 내면적 부패의 원인: 기독교학적 접근

내면적인 부패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기독교관점에서 접근하여본다.

첫째, 인간의 영적인 갈증과 불가 치유 적인 종교성(incurably religious)에 기인하고 다 른 피조물을 섬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출32장1-12²⁷⁾에서 성경은 부패의 원인을

24) 김홍전(1994), 『예수님의 행정』 서울:성약사, 198-199.

25) Reinhold Niebuhr(1935),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70.

26) 김홍전(1985), 『중생자의 생활』 서울: 성약사, 12.

27)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아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느니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아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여호

흥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 부채한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숭배를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책망하면서 “부패하였다”고 지적한다.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한다.

둘째, 영적인 탐욕에서 부패는 배태된다. 성경은 탐욕이 부패의 주범임을 잘 말해준다. 예컨대 약1:15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탐욕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탐욕은 인간의 원천적인 욕망이다. 물질, 명예, 본능적인 욕구가 포함된다.

셋째, 영적인 면을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데서 발생한다.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영적으로 충족해야한다. 그런데 물질이나 지위나 그 외에 세속적인 그 무엇이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러한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영원적 이고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의 극치를 향유하여 보았으나 그는 끝내는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음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²⁸⁾ 그의 고백은 인간의 탐욕을 모두 채워보았으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에서 솔로몬 왕의 고백을 살펴보자.

1장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 하게 하신 것이라 **14**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쉼 수 없도다 **16**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 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백성은 모세의 위대한 지도 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란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 관계에 속하는 것임을 명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야 되며,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였어야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참 신앙에 서지 못하였고, 도리어 보이는 우상을 사모하였다. 곧, 그들의 심리는, 애굽과 애굽 신들을 사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기어이 애굽신(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들이 부패하였다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박윤선(1981), 성경주석: 창세기, 출애굽기 서술: 영음사, 640-641.

28) 한영해설성경(1999;NIV) 서울: 아카페,946-947.

2장 1나는 내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3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7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8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11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욕망을 세상의 많은 것으로 채워보았으나 만족을 얻지 못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내면적 부패의 처방은 없는 것인가?

4. 내면적 부패의 처방

부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인간내면의 혁명적인 변화가 선결요건이라고 기독교는 주장한다. 이것을 “거듭남”(To be born again) 이라고 한다. 외형적인 요건보다는 인간의 영적인 내면적인 내재적인 변화가 있어야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문화로 사회적인 규범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보게되는 것이다.

첫째, 본성적 인간(natural man)에서 은총과 전적인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가 필요하다.²⁹⁾ 위대한 감리교 창시자 John Wesley(1703-1791)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에 전적으로 부패(wholly corrupted)하였으므로 은총(by grace)으로 전적으로 새롭게(wholly renewed)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인간의 본성 비판주의에서 은총의 낙관주의를 전환하는 곳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에서는 만인 타락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부패에서의 해방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salvation)이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이다.³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성에서의 해방에 대하여 논의하여본다.³¹⁾ 부패의 치유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치유의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기독교 경험의 영속적인 구조, 세계 또는 경험의 세계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두 “자료들”간의 비판적인 상관성, 또는 어떤 경우에는 비판적인 충돌에 대한 분석 등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원리들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자신의 실현과 삶의 의미인 성취를 의미한다. 둘째는, 기독교론적인 매개이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운명은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삶 안에서 계시되었다. 모든 인간을 위한 고통을 통하여, 특별히

29)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http://calvary-e.com> /성경%20공부/참고%20file/신앙%20인물/

30) 요3:1-16. 니고데모의 예수님 방문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1) 자세한 것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윤철호(1998), *예수그리스도(하)*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355-384.

비천한 자와의 연대성 안에서 그들을 위한 고통을 통하여 예수는 구원을 가져왔다. 셋째, 교인의 삶의 유형이다.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으며 종말론적 성취를 가진다. .

기독교에서는 부패의 치유자는 예수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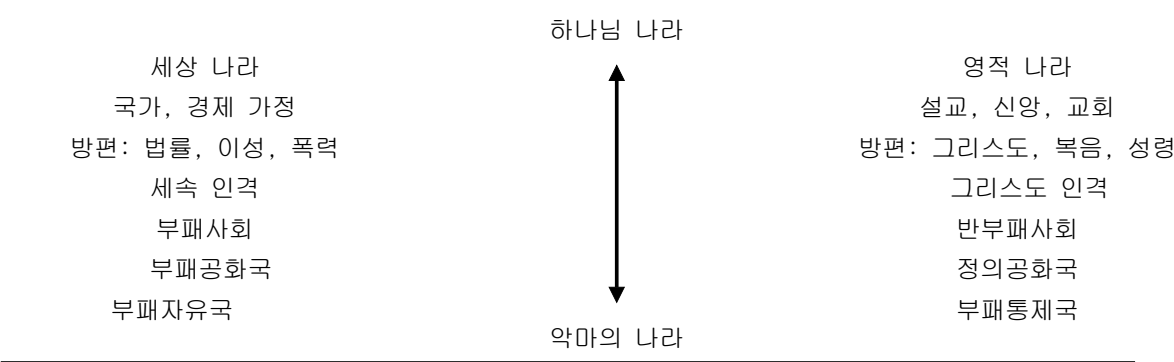
죄 때문에 예수그리스도 가 오셨고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마 1: 21; 딤후전1:15; 1요 4: 10)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양이 바로 예수였던 것이다(요1:29, 36; 뱀전 1:19). 이처럼 인간의 죄는 신약이 존재하게 되는 데 전제요 근거가 된다. 예수 자신은 죄가 없었으면서도(뱀전2: 22; 히:4:15절) 스스로를 선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눅18: 19).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 이시면서 인간 이신분(the son of man)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mediator), 우리의 구속주 (redemptor), 우리의 화해주(reconciliator), 그리고 우리의 구주(salvator) 이심을 받아 들이는 것이 부패에서 벗어나는 길이다33).

셋째, 세속적인 세계의 성결(santification) 과 부패통제메카니즘을 잘 활용하여야한다.

몰트만의 도식을 응용하여 부패사회와 반부패사회, 부패공화국과 정의공화국, 그리고 부패자유국과 부패통제국을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궁극적으로 반부패의 시스템을 몰트만(Jurgen Moltmann)의 도식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34)

표4-1 세상나라와 영적 나라의 비교



자료: 이표는 몰트만의 도식을 필자가 부패문제와 연결시켜 표시한 것임

첫째로 영적 나라에서 세상나라를 보면 이쪽에 영, 저쪽에 행위, 이쪽에 복음, 저쪽에 율법이 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악마의 나라로 본다면 영적 나라와 세상나라는 긴밀히 접근한다. 두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악마의 세력에 대항해 싸운다. 이쪽에 말씀과 신앙이 있고, 저쪽에 질서, 평화, 법이 있다. 셋째로 두 나라의 차이를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두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모순 가운데 선다. 이쪽에서 산상설교의 복음에, 저쪽에서 법률과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두 나라를 서로 구별하고 경계를 그어서 국가권력을 교회의 지배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나 국가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것이며, 타락한 인간들이 무질서하게 서로 해치며 사는 악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를 제정

32) 백완기, *ibid.*232.
 33) 이형기, *op.cit.*, 316.
 34) 김철영(2000), *정의와 공동체생활*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410.

했다는 주장을 한다. 넷째, 부패공화국과 정의공화국은 서로 대칭되나 반부패와 통제메카니즘이 가장 잘 되어있는 국가가 바람직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독교에서는 세상이 부패가 관영하나, 예수 자신은 죄인이 아니더라는 사실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인간의 내면적 부패가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마:15:18-20, 막7:15-16등에서는 부패의 속성을 마음의 부패인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언과 횡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한다. 한 마디로 인간의 마음자체가 바로 부패의 근원이므로 이러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원의 물음은 단지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물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보편적인 물음이 되었다.³⁵⁾ 첫째, 구원경험의 보편성이다. 구원론적 주제는 구원경험의 보편성이며 신앙 안에서의 회개에 의해서 가능해진다..³⁶⁾ 따라서 예수는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차원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인간에 대한 최상의 표상으로서의 창조적인 힘이 있는 상징이다. 개인적이고, 역사적으로 독특한 독창성(originality)과 인간의 보편성이 함께 통합되어 있다. 둘째, 사회 정치적 구원이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일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국면에 있어서의 인간을, 그리고 개인적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구원이어야 한다. 신약성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태는 삶의 내면적 갱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갱신과 개선을 포함한다. 셋째, 보편적, 사회적 윤리 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특수한 삶의 형태의 문제를 포함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원과 해방은 윤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기독교 윤리는 더 이상 단지 개인적인 윤리일 수만은 없으며, 사회 정치적인 차원의 윤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화되어야 한다.³⁷⁾ 자기 해방과 구원을 주장하는 전체주의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한다.

넷째, 내면적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영성(spirituality) 회복이 시급하다. 영성(spirituality)³⁸⁾이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성에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엄격한 자기훈련과 장기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의 삶과 인격과 정신을 본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에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 예컨대 청빈, 고독, 침묵, 봉사, 순종, 고백, 기도 등 여러 가지의 훈련방법이 활용된다. 기독교의 영성과 타종교의 영성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Holy Spirit)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의 과정에서 그 분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의 주요 요소는 ① 인간의 관계형성능력 ②관계대상은 감각현상을 초월하는 존재 ③관계의 경험은 역사성이 있으며 ④초월과의 경험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독교인의 공직자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성장 전략에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공직관이 비기독교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수년전 지도자적 기독교인들이 소위 “웃로비사건”³⁹⁾에 연루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을 기억한

35) Ibid., 57-58.

36) Ibid., 60.

37) Ibid., p.661.

38) 오성춘(1997), *신학영성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338-35

39)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에게 고가의 웃

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교회의 적절한 부패치유 처방이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케리쿠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봉사), 디다케(교육), 그리고 코이노니아(친교)이다. 오늘날 만연된 한국사회 부패병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고 종교인, 특히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마5:13-14 에서 강조하고 계신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가 사실상 둘 다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마22:37-40에서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인 것을 강조한다. 마5:23-24 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신앙과 윤리는 분리 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시고 있다. 눅 10:25-37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고난 당한 자를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의 위선과 허구성을 고발하고 있다. 교회는 사회봉사와 선교가 동시에 중요한 전략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만연된 부패현상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부족하였던 책임이고 성도들의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면적 부패는 교회의 적절한 역할모형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처방의 효과는 크게 확대 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학 접근을 통하여 내면적 부패에 대한 개념과 원인, 그리고 처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의 부패현실이 모두 심각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처방이 없는가고 질문을 한다. 개신교가 1885년에 한국에 전래된지 108년이나 되었고 카톨릭의 전래 까지 합하면 200년 이상이나 되었다. 기독교가 전래 된 이후 교육, 의료, 경제, 과학,

로비를 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1998년 5월에 라스포사 등 고급 의상실에서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이 검찰총장 부인이 지불해야 할 고가의 옷값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에게 대신 내주도록 종용한 사건이다. 목적은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의 구명을 위한 로비를 위하여 한 것으로 1999년 5월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로부터 1998년 말 고급 옷을 받았다는 소문이 보도되면서부터 엮였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거의 모두 기독교 지도자들로 밝혀졌다. 특히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국회 청문회에서도 관련 여인들의 거짓말로 이어져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8일 최병모 변호사가 옷로비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특별검사팀은 연정희가 가질 마음으로 호피무늬 반코트를 받았으며, 신동아그룹 로비스트 박시언에게 수사기밀을 알린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검찰 및 사직동팀이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1999년 12월 20일 특별검사팀은 옷로비사건이 '이형자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부인들에게 시도한 실패한 로비'라고 공식발표하고 그 임무를 끝마쳤다. 그러나 1999년 12월 30일 대검찰청 은 옷로비사건 진상을 이형자의 자작극으로 축발된 '실체 없는 로비'로 최종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것은 특별검사팀이 내린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34559>

기술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무려 12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학적으로 볼때 세속적인 부패관보다는 훨씬 심층적으로 부패를 다루고 있다. 사실 이것은 도덕이론이나 법이론을 넘어서는 신학적인 범주에 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적인 부패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심층적인 처방을 수용한다면 우리사회의 여러 부패의 열매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주장이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문제이며 형이상학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계1:3)

요약하면 내면적 부패의 패러다임은 ① 기독교인의 영성(spirituality)회복 패러다임 ② 기독교인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패러다임 ③ 교회의 케리쿠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그리고 코이노니아 패러다임의 균형·조화 패러다임등이다.

참고문헌

- 구약원어 대조성경(1993),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김영중(2001), *부패학* 서울: 숭실대출판부
 김철영(2000), *정의와 공동체생활*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410.
 김홍전(1994), 『예수님의 행정』 서울:성약사
 ----(1985), 『중생자의 생활』 성약사
 윤철호(1998), *예수그리스도(하)*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부패특별위원회(2001), 『부패방지백서』 서울: 반부패위원회,
 박중훈(1999). 『공직자 부정부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백완기(1999), *성경과 민주주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송진혁(2003,8,19), “강산에 진동하는 돈 냄새”, 서울: 중앙일보
 오성춘(1997), *신학영성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338-35
 이선호(1993), *스태판원어성경* 서울: 원어성서원
 이승구 역(1987), 『기독교 세계관』 서울: 엠마오
 이형기(1997),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사
 장준오(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영국외(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선일보, 2003, 11, 21
 최낙재(1986), 『하나님의 나라』 서울:성서유니온
 칼빈(1977, 김문제역), *기독교강요* 서울: 세종문화사
 한영해설성경(1999;NIV) 서울: 아카페
 Berkhof, Louis (1938),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The Banner of Truth, 1938.
 Drummond, Henry (유호준 역)(1995),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Frederickson, H. George(1997), *The Spiri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francisco: Jossey-Bass Publishing Co.
 Friedman, Myles I.(1997),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 Holistic Scientific Strategy* Westport: Praeger
 Fromm, Erich(1941),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Avon Books
 Harkness, Georgia (김재준 역, 1963), *Christian Ethic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Kim, Young Jong(2003), *New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Corruption Studies* Seoul:

Hyung-Seul Publishing Co.

Kummel, Werner Georg(1973),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Nashville: Parthenon Press

Laymon, Charles M.(1971), *The Interpreter's One-Volum Commentary on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Lewis, Carol W. (1991). *The Ethics Challenge in Public Service*. Washington D. C.: ASPA.

Lingenfelter, Sherwood G.(1995),*Transforming Cul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Niebuhr, Reinhold(1935) ,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Spradley, James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중앙일보, 2003,10,18,

중앙일보2003. 6, 18

<http://calvary-e.com/성경%20공부/참고%20file/신앙%20인물/>

저자 프로필

김 영중(Kim, Young Jong, Ph.D.,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부산대학교(LLB,MPA,LLM)

미국플로리다 주립대학교(The Florida State University,Ph.D)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

ACUCA 초청 아시아 6개국 기독교 대학 특별강의 교수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미국,일본,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멕시코, 호주, 터키, 페루, 말레이시아, 스위스, 홍콩), 한국부패학회회장

현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교수, 한국부패학회고문, 평화통일 자문위원

저서: 부패학, New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Corruption Studies, Public Sector Ethics 외

30 여권